



즉시 배포용: 2025년 5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방해 없는 학교: HOCHUL 주지사, 전국 최대 규모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를 뉴욕이 도입한다고 발표**

*주지사는 K-12 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 학교, 학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공약 이행*

*각 학교는 유연하게 재량에 따라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교내 스마트폰 보관 솔루션에 예산 1,350만 달러 배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K-12 학교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를 뉴욕이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2026 회계연도 주 예산 합의의 일환으로 이토록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주 예산 합의 및 통과에 따라, 뉴욕주의 방해 없는 학교 정책은 올해 가을 2025-2026 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Hochul 주지사는 작년 미성년자의 중독성 소셜 미디어 피드를 제한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을 확보하고 서명한 데 이어 청소년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학생의 성공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처음으로 중독적인 소셜미디어 피드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낮 시간 동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주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누르고 스크롤링하는 대신 배우고 성장해야 이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은 2025-26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공립 교육구의 모든 학교와 차터 스쿨 및 협력 교육 서비스 위원회(Boco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 BOCES)에 적용됩니다.

Hochul 주지사의 휴대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뉴욕주 전역에서 방해 없는 학교를 만듭니다.

- K-12 학교의 학교 운동장에서 수업 시간 및 점심 시간, 학습실 시간 등의 기타 환경을 포함하여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벨 투 벨")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개인 장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학교에서 자체 스마트폰 보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와 교사에게 건물과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스토리지 솔루션 구매에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1,350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여 방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보합니다
- 필요한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낮에 자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지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불평등한 관행을 예방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정책은 또한 학생들이 인터넷 기능이 없는 간단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수업 계획의 일부로 사용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이 학교에서 강의실 수업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지원 장치에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주지사의 정책에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서 요구되는 경우 또는 번역과 같은 기타 학문적 목적으로 의학적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지원 장치에 액세스해야 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스마트폰 제한에 대한 몇 가지 면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결과를 수집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 전역에서 연 후 이번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습니다. 주지사의 보고서 ["더 많은 학습, 더 적은 스크롤: 방해 없는 학교 만들기\(More Learning, Less Scrolling: Creating Distraction-Free Schools\)"](#)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습과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정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직접적인 지침은 성공적인 구현의 핵심입니다.
- 학교는 낮 동안 자녀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방해 금지 정책은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전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학교는 클럽, 스포츠, 예술 및 기타 프로그램과 같은 대면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연결함으로써 방해 없는 환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에 대한 주지사의 오랜 의지를 강화합니다.

2024년 6월, Hochul 주지사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이를 확보한 후 자녀 안심법(Safe for Kids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처음으로 서명된 이

법률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1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대해 플랫폼에서 중독성 피드를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중독적인 피드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웹사이트의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사이트와 연결된 장치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 전역에서 정신 건강에 투자한 10억 달러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주정부는 더 많은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클리닉에 2,000만 달러의 스타트업 자금을 제공하고 롤링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학교는 이전에 사용하던 주 조달 절차보다 더 쉽게 이러한 클리닉 지점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표된 이후, 주정부는 현재 주 전역에 존재하는 1,100개 이상에 더해 71개의 새로운 클리닉 지점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 중 40개가 수요가 많은 구역에 있습니다.

**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의 Melinda Pers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휴대전화나 기술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각종 방해요소에 시달리지 않고 일곱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창의성을 기르며 진정으로 사람간의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기술 사용을 공중 보건의 시각에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협력과 교육,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뉴욕은 이미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Phones Free New York의 창립자인 Raj Goy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의 유해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두 명의 십대 딸을 둔 뉴욕의 아버지로서 저는 뉴욕이 벨투벨 밴드를 시행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가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교육구와 협력하여 혁신적 법안 시행을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Mothers Against Media Addiction의 Julie Scelfo** 창립자 겸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중독적인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배우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합니다. 학부모로서 교내 학습의 방해물을 없애고 전국에서 시행 가능한 모델을 뉴욕에서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입법가들께 감사드립니다. MAMA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승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개 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45개 주만 남았습니다."

**Mothers Against Media Addiction의 할렘 지부 대표이자 아동복지 변호사인 Muna Heav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중독적인 기술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의견을 듣고 올바른 일을 위해 투쟁하는 주에 살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Hochul 주지사와 같은 지도자와 운동가들 덕분에, 뉴욕은 모든 K-12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적 성과를 개선할 뿐 아니라 주 전역에서 학생들의 전반적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Farnsworth Middle School의 8학년 학생인 Anika Bhupa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ell-to-Bell' 스마트폰 제한 정책은 학생들의 집중을 돕고 유의미한 관계를 맺도록 하며 학습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학교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면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보호하고 뉴욕 전역의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